

완도군, 적극행정 협업 제도로 군민 체감 군정 '실현'

행정안전부 시범 선정 8월부터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 확산 긍정 평가시 2025년 본격화 업무개선·행정 아이디어 발굴

완도군이 오는 8월22일부터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실현에 나섰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적극 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공무원이 매일 각종 아이디어 발굴·채택, 업무 개선안 마련,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적극 행정 교육 수료 등을 수행하면 점수에 따라

상시 학습, 완도사 랑상품권,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이용권, 포상 휴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업 사례도 마일리지를 부여해 공식 사회의 고질적 관행인 칸막이 행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 모두 참여토록 했다.

군은 적극 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 후 자체 진단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2025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적극 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내년 지적재조사 신규 지구 모집 진도군, 9월 말까지 접수

진도군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를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마을대표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방문 신청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재조사 측량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 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며 측량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건축물 저축·맹지를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해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를 통해 지정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목포해경, 저지대 침수 우려 등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라 24일까지 2일간 목포시, 영광·진도군 일원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23일부터 24일 사이 목포시의 해수면은 최고 5.06m, 영광군은 6.94m까지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만조 시 저지대 침수 등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 방송을 통한 안전 정보 제공 및 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완도군 군외면에서 한 농민이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군외면 일원 재배 농가에서는 캠벨포도, 샤인머스켓, 거봉 등이 재배되고 있다.

완도군, 해변 포도 본격 수확

완도군 군외면에서는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수확이 한창이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는 캠벨 포도, 샤인머스켓, 거봉 등이 재배되고 있다.

포도는 과일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 아미노산, 유기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는 일반 포도에 비해 미네랄이 풍부하고 향이 짙으며 당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당도는 17브릭스(brix)로 단맛이 강하고 포도알이 탱글 탱글해 껍질째 먹어도 식감이 좋다.

하우스재배 포도는 7월 중순부터 수확과 함께 판매를 시작했으며 노지 포도는

8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할 예정이다.

휴가철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완도 진입 시 군외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포도를 첫 출하한 군외면의 한 농민은 "포도 재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 유지, 포도 순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당일 수확한 싱싱하고 달콤한 포도를 꼭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군, 벼 이삭거름 적기 적량 사용 당부

고품질 쌀 생산 목표

무안군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이삭거름을 적기·적량을 사용하도록 농가에 당부했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벼가 쓰러질 수 있고 늦으면 이삭이 출수된 후 질소 성분이 많아져 목도열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

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6월 5일 이전에 모내기 한 논은 8월 15일경, 6월 5일 이후에 모내기한 논은 8월 19일경인 출수 예정일에 따라 일반재배의 경우 안정생산을 위해 이삭 나오기 전 25일 전, 고품질 재배의 경우 15~18일 전이 이삭거름의 적당한 시기이다.

이삭거름을 주는 양은 논 기준으로 이삭거름비료(N-K) 10~12kg를 10a에서

용하되 벼 생육 상태 및 토양 조건에 따라 가감해서 주고, 거름기가 많아 도복이 우려되는 논에는 염화가리를 10a당 3~5kg 주면 된다.

이재광 식량원예과장은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는 도복, 수량 및 미질과 관련이 많이 되므로 반드시 적기 적량을 사용해야 하며 이삭이 팬 후 10일까지는 논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물 걸러 대기로 뿌리의 활력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원어민 화상 영어 수업 지원 해남군교육재단

해남군 교육재단(이사장 명현관)은 지난 22일부터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화상영어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들어 두번째인 화상영어 지원사업은 상반기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자들의 76%가 평균 1.08의 레벨 향상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하반기는 11월22일까지 18주간 운영되며 대상은 해남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 70명과 성인 30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한다.

화상영어 지원사업은 참여자와 원어인이 1:1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플랫폼(gbi20)을 통해 전 연령 수준별 맞춤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개인 PC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수강신청 시 선택한 수업시간에 화상영어 누리집(<https://hn.eduinfo.com/>)을 통해 입장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참여자 모집을 통해 군민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실감하였으며,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화상영어 지원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어린이 예방접종 당부 백일해 전국 유행 대비

해남군이 올들어 전국적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내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7월6일 기준 전국적으로 6986명의 환자가 발생, 전년 대비 24배 달하는 등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발작성 기침을 유발하며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한 전파로 집단 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 간접전파 되기도 한다.

성인은 백일해 증상과 질병의 경과가 심하지 않으나 영유아처럼 면역력이 약한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영유아는 2, 4, 6개월에 기초접종을 받고 어린이집·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15~18개월, 4~6세, 11~12세 어린이는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관내 어린이 백일해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병원에서 유료 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손주, 손녀들에게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접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확산세가 보고되고 있다"며 "12세 이하 어린이는 백일해 등 무료 국가 예방접종 18종을 반드시 완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